

종교갈등이 '가족의 연' 끊을 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15 부모님의 눈물

종교를 강요하는 동서

L씨의 시동생 내외는 몇 년 전 다른 종교를 믿기 시작한 후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L씨와 남편에게 "전도" 하려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착하고 무뎠던 성격이던 동서가 급할 줄을 모르게 되었다. "형님, 00님을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셔야지요." "이 보게,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야. 나는 절에 다니지 오래 되었는데 이제 와서 종교를 바꾸라고 하면 되나?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들도 절에 다니셨지 않아.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누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되네." "그러다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조건 00님, 그 분을 영접해야 살 길이 있어요. 아니면 큰일 나신다고요!" 하였다. L씨는 그 편협성과 아집에 기가 질릴 지경이었다.

L씨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것은 부모님의 제사 때였다. 시동생 내외는 제사 때 오면 한쪽에 앉아서 절대로 제사상에 절을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는 돌아갈 때까지 이제 제사는 그만 하시고 자기들 가는 곳에 함께 다니시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부모님 제사에 절하지 않으려면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형제간 의가 상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 날도 시동생 내외는 제사 치내는 동안 한 쪽 구석에 앉아 자기들 식으로 기도를 계속할 뿐 상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날은 식사 후

유난히 더 동서가 날카롭게 말했다. "정말 효도가 뭐겠습니까. 부모님들을 00님께 인도해 드리는 길이예요. 형님도 이제 그만 하시고 저희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동서는 작정하고 온 것 같았다. "그래요, 더 이상 보지만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제사 때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는 문을 나서며 "알아주세요! 저 오늘부터 작정하고 형님이 00님을 믿도록 백일

타 종교 믿게 된 시동생 내외 가족에 개종 요구·제사도 거부 꿈에 찾아오신 시부모님 눈물... 자식으로서 진실한 마음 회복

기도를 올리겠어요. 한번 두고 보세요! 그래도 안 바뀌신다면 앞으로 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마치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 날 밤 L씨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의가 끊기는 것은 이런 경우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다. 마음으로 조상님들께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렸다. 시동생 내외를 위하여 마음을 내었다. 동서가 백일기도를 한다고 했으니 나도 조상님들과 부처님께 기도해야지하고 마음먹었다. 절

대로 시동생 내외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누구든지 근본은 다 부처님이라고 하였다. "그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불교에서는 무명(無明)만이 죄라고 하였다. "그들의 아만과 독선을 녹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상님께 불경하지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절에 못가는 날은 집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한 달이 넘은 어느 날 아침이었다. 뜻밖에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L씨는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싶어 가슴을 졸였다. 그런데 동서는 울고 있었다. "형님, 죄송해요. 매일 꿈에 시부모님이 나타나세요. 그날부터 벌써 한 달을 똑같은 꿈이에요. 저희 집에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붙잡고 우시지만 하세요. 매일 밤,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L씨에게 부모님의 환한 미소가 아른거리고 있었다.

오직 목불본

L씨는 동서의 독선에 대하여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가 불자가 되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자식으로서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도록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낸 것이다.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말씀처럼 부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눈물로 동서에게 나누신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불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때문이다. 누구나 근본은 부처인데 잘못을 범하는 이유는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을 잠시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업도 공(功)하여 언제라도 한 생각 돌리고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서로에 대한 바른 믿음과 희망이 절실히 필요 한 때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탱해준 인연 (상)

주보문심 서울 마포구 망월동

"지심귀령에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매일 새벽 불교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새벽예불 소리에 맞춰 향을 사르고,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은 30여 년 전 부산의 한 산사의 새벽예불을 떠올리며 아련한 그리움의 감회에 젖어듭니다.

불교에 귀의하고, 2년 후부터 시작된 이 새벽예불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벽의 적막 속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연불소리는 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과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지요. 이렇게 시작된 나의 새벽기도는 2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예불 후 1시간 동안 드리는 관음기도는 주지 스님께서 꼭 주관하셨고, 20여명 남짓한 신도들이 매일 참석했습니다. 저는 기도 정진으로 차츰 차츰 신묘한 불법의 세계에 빠져 들었습니다.

원래 저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처녀시절 가톨릭 신자가 되기 위해 새벽 교리반을 다니며 공부하고, 직장에 출근을 했죠. 어렵게 영세를 받고, 1년 후 청년회에 가입하여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웃에 사시던 보살님이 새벽 관음기도를 권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관음기도에 열심히 다니게 된 것이 나의 신심을 더욱 돈독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 친구들은 나를 다시 가톨릭을 믿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냥 타의에 의해 맹목적으로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고. 그 즈음 양산 통도사에서 보살계 법회가 있다고, 보살계를 받으라고 새벽기도 다니는 절의 공양주 보살님이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보살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통도가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처럼 30대 불자는 한 명도 없고, 다 노보살님들이 보살계를 받으러 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고개를 틀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노보살님들 틈에 끼어 통도사에 도착한 저는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왜 딸, 며느리들은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고 호통을 치셨던 것입니다. 사흘간 <법망경> 법문을 다 듣고, 계를 받았습시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금강계단을 합장하고 들면서 참 불자가 될 것을 부처님께 발원했습니다. 이 보살계 수계식에서 들은 <법망경> 법문은 그 후 나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계속)

리고 가서 신도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 절은 내가 다니던 성당과 불과 몇 백 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릴 때면, 성당에서 울려오는 종소리가 온통 내 마음을 휘젓곤 했습니다.

그럼수록 저는 불교를 알려고 노력했고, 그 절의 큰스님께서는 초심자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교신문도 구독하고 불교 서적도 읽으면서 차츰 불교에 심취해 갔습니다.

'보문심'이란 불명도 받고, 어린이법회에 남매를 보내 불심을 두게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날로 번창했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몇 년 후 남편이 친구에게 보증을 선 것이 잘못되어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바보스럽기만 해 몇 번이나 이혼하려고 하는 마음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웃에 사시던 보살님이 새벽 관음기도를 권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관음기도에 열심히 다니게 된 것이 나의 신심을 더욱 돈독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 친구들은 나를 다시 가톨릭을 믿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구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냥 타의에 의해 맹목적으로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고. 그 즈음 양산 통도사에서 보살계 법회가 있다고, 보살계를 받으라고 새벽기도 다니는 절의 공양주 보살님이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보살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통도가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처럼 30대 불자는 한 명도 없고, 다 노보살님들이 보살계를 받으러 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고개를 틀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노보살님들 틈에 끼어 통도사에 도착한 저는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왜 딸, 며느리들은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고 호통을 치셨던 것입니다. 사흘간 <법망경> 법문을 다 듣고, 계를 받았습시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금강계단을 합장하고 들면서 참 불자가 될 것을 부처님께 발원했습니다. 이 보살계 수계식에서 들은 <법망경> 법문은 그 후 나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계속)



그림: 문병성

가톨릭 신자에서 결혼 후 불교 신자로 집안몰락 좌절...새벽 관음기도로 극복

4월 4회 한국선교회 대법(茶)전수 대회 및 제1회 108한다례=법배의 보고장지자 차의 시배지인 하동 생계사에서 제2회 하동아생자축제 기간 중 5월 18~19일 제4회 한국 선교회 대법전수 대회 및 제회 육조·진강·초의 선사 108한다례를 개최한다. 생계사는 육조해능·진강 국사·초의 선사 등 한국다맥 임류사찰로 그동안 대법전수대법회를 병행해왔다. 올해부터는 제회 육조·진강·초의 선사 108한다례 행사도 같이 진행한다. 18일 오후 1시~1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4회 한국선교회 대법(茶)전수대법회는 생계사 팔영루에서 열린다. 대법전수식은 19일 오전 10시 30분이다. 제회 육조·진강·초의 선사 108 한다례는 18일 오후 2~5시에 선착순 10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진강·초의대맥 한국선교회 주최한다.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 상하백색 한복과 말차 시면차구, 다 완을 준비해야한다. (055)883-1901~2

●용궁사 연꽃문화제-말양 용궁사는 5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용궁사 대웅전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전통놀이공연 및 체험 마당이 펼쳐진다. 이날 어린이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도 같이 열린다. 어린이법회 개설 선포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055)354-4464

●장제인 수계법회-서울 조계사는 5월 19일 오후 12시 30분 장제인 수계법회를 진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개사로 나서는 이번 법회는 중남 차원에서 열리는 최초의 장제인 수계법회이다. 장제인 300여명이 연비를 받을 예정이다. (02)732-2183

●파라미터 음악놀이 페스티벌-파라미터청소년협회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 20일 제7회 파라미터 음악놀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참가자별 공연시간은 3분. 파라미터 홈페이지(www.parami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오후 5시부터 서울 우정국로 야외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02)723-6165

●무로 의로검진=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사)날마 다중은날이 5월 19일 오전 10시~오후 4시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 의로검진을 실시한다. 이날 의로검진은 양방 한방 검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02)732-7272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쉽게 살이 빠지는 비법 공개
관절염을 가정에서 쉽게 해결하는 비법 공개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엔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남산스님 약력
• 경북 철곡군 기사면 출생
• 한사대(현 대구대)특수교육센터 졸업
•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과 졸업
• 중국 남경 중의대학 기공학 석사과정 수료
• 중국 요녕성 중의약 대학교 비만학과 교수
• 녹색 대학교 석좌 교수
• 한국대체의학 연구소 소장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절리/갈 10,000원

국부카르마 문의 080-999-1080
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불타담)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모가 거의 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연 등(정품)
법당용(공단용),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간전지용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청사초등 및 초롱 곁이대

연 등(정품)
법당용(공단용),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